

社告

### 시조 태사공 춘향제 안내

시조 태사공 및 낭중공 춘향제가 4월 6일 능동재사 일원에서 봉행됩니다. 그러나 안동시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제 183호인 능동재사 부속건물 동재, 서재, 공성재 등 네 채에 대한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전날 대당회는 개최하지 못하고 도유사 등 헌관과 참제원들은 당일 입재하여 춘향제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3.1

### 안동권씨 대중회장

### 2023 계묘년 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 성대하게 개최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 주최 '2023 계묘년 안동권씨 신년인사회'가 2월 18일 오전 10시 안동시청 영남 홀에서 원로회원,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15개 파종회장, 능우회, 능곡회, 권사모, 부인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대회장 앞에는 권해욱 대중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성동 국회의원, 권사모, 능곡회 등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대형 화환이 30여 개 진열되어 있다. 이날 날씨는 잔뜩 흐려 비가 올 것 같으나 비는 내리지 않고 영상 3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대회장 안 입구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운, 권기탁 시의원, 권광택 도의원 부인이 일렬로 서서 입장하는 종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다소 완화함에 따라 올해는 신년인사회를 개최, 성황을 이루었다.

권기원(종친회 사무국장) 신정옥(아나운서) 두 사회자는 고운 한복으로 같이 입고 진행을 맡았으며 장내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식전행사도 풍물굿패 '찰넛' 남녀회원 3명이 무대에 나와 신나게 북을 두드렸으며 이어 전통민요 연구원 이혜옥 원장 등 3명이 경기민요와 안동아리랑을 멋있게 불러내는 박수를 받았다.

곧 이어 본 행사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문중을 빛낸 선조에 대한 묵념, 시조 묘소 망배, 상운례를 하였다. 권철환 종친회장은 1100년 역사를 가진 안동권씨의 원로원 권재주 초대회장과 임원, 권계재, 권숙동, 권주연 원로원 고문, 권순길 종파회장을 비롯 15개 파종회장, 권영직 지회장협의회 회장, 권재용 총무협의회 회장, 권오익 부녀회장, 권오성 능곡회장, 권기택 권사모 회장, 손복영 부녀회장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 남녀 두 사회자도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김형동 국회의원, 권오을 전 국회의원, 권영세 전 안동시장, 김대일, 김대진 도의원, 김경도, 권기운, 권기탁 시의원, 권순환 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 남안동농협조합장, 권영구 북안동농협조합장, 권민 전 농협안동사료공장장,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등을 소개하였다.

이후 무대 위에선 권기창 시장과 권숙동 전 종친회장이 권철환 종친회장이 안동종친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명패(名牌)와 꽃다발을 각각 전달했다. 사회자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성동 국회의원이 보낸 축전을 낭독하기도 했다.

권철환 회장은 신년사에서 "신년인사회가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세대 간의 연결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권숙동 전 종친회장은 축사에서 "4년 5개월 동안 종친회를 운영하면서 모든 면에서 조직이 안동권문이 최고인 것을 알았으며 앞으로 종원들은 화합하고 단결하여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권기창 시장은 축사하기에 앞서 단상 위에서 종원들을 향하여 큰절을 올린 후 "올해 신년 화두를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漣水架橋)로 정하고 이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



수상자들. 자랑스런 며느리상 고덕자,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효행상 권영, 공로상 권영건(왼쪽부터)

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이다.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안동 미래 100년의 기쁨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권기익 시의회 의장은 종원들을 향하여 큰절을 하고 나서 "권숙동, 권주연 두 회장이 안동권문을 잘 이끌어 주어서 고맙다"며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종친회 발전에 힘써줬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회의원도 큰절을 하고 나서 "안동권씨의 역사가 1100년을 이어 왔으며 안동권씨가 안동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지방시대를 여는 곳이 안동이 될 것이며 안동은 지방소멸이 아니라 안동발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석환 안동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아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안동권씨가 아니라 이런 큰 행사를 볼 수 없는데 안동권씨가 아닌 타성(他姓)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안동권씨 문중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영세 전 안동시장은 "12년 동안 안동에서 살면서 진실으로 고맙다"며 "안동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힘차게 밀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9명이 인사말과 축사가 끝나자 권철환 회장은 권영건씨(안동권씨대중회 보도부장)에게 공로상을, 권영씨(안동시 와룡면 총무)에게 효행상을, 고덕자씨(안동시 강남동)에게 자랑스런 며느리상을 각각 수여하고 부상과 꽃다발을 전했다.

이후 분위기를 바꿔 트롯 가수2에 출연, 인기를 끌었던 권도훈군(14. 중1년)이 아래 위 흰색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나와 '안동역에서'를 열창했다. 종원들이 앙코로를 연호하자 권군은 앙코르 곡을 많이 준비해 왔다고 너살을 부리면서 '바보 같지만' '가치마' 두 곡을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노래가 끝나자 종원 10여 명은 권 군에게 5만~10만 원씩 돈을 주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큰 가수가 되어 달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마지막 행사로 경품 추첨에 각종 생활품 및 전자제품 등 28종 240점이 출품되어 추첨 결과 영예의 1등상은 권태양씨(67.안동시 무주무7길 42-11) 부인 김순녀씨(64)가 차지, 50인치 TV 1대를 수상했다.

신년인사회가 끝나자 종원들은 행사장 근처에 있는 각 식당으로 분산,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 안동종친회, 지회장협의회 및 총무단협의회 척사대회 개최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는 계묘년을 맞아 관내 지회장협의회 및 총무단협의회 척사대회(擲札大會. 윗놀이)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입춘(立春)인 2월 4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18(태화동) 안동종친회관 2층 회의실에 윗놀이 장을 마련, 척사대회를 가졌다. 30여 년 전부터 안동종친회 관내 지회장협의회 및 총무단협의회가 있었으나 그동안 척사대회는 읍, 면, 동에서 각각 개최하였지만 올해처럼 한 자리에 모여 척사대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24개 읍, 면, 동에서 모인 회장 및 총무는 100여 명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권순택 지회장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묘소 망배, 상운례를 하였다. 권계동, 권숙동 두 고문을 비롯하여 권기창 안동시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영직 지회장협의회 회장, 권재용 총무단협의회 회장, 권영건 전 부회장공파총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총회장, 권오익 대중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민 전 안동사료공장장,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 권기운 안동시의원, 권태영 전 안동농협 상무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선 내년 총선 때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 권용수 교수와 오는 3

월 총협 및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권면씨와 권태영씨가 참석,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오늘 척사대회는 안동권문의 발전이자 역사"라고 말하고 "즐거움 척사대회에서 마음껏 즐기시기기를 기원 한다"고 당부했다. 권철환 종친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는 2월 18일 안동종친회 주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3천여만 원이 들어서 요즘 열심히 뛰어 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안동시청 강당이나 학교 강당, 국제탈춤공연장에서 복회(伏會)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색다르게 시조 묘소가 있는 능공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안동권문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5월 서울에서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안동에서도 회장 후보 1명을 추대해서 회장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면씨는 "종친회에 자주 나오지 못했으나 앞으로 종친회에 자주 참여 하겠다"고 말했으며 권용수 교수는 "경험도 없으나 종친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직 지회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음식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아무 부담 없이 마음껏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당부했다. 권재용 총무단

협의회 회장은 "회장을 20년 째 맡고 있지만 척사대회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젊은 사람이 참석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시키자"고 다짐했다. 좀 늦게 도착한 권숙동 고문은 올해는 종원끼리 화합하고 단결하고 만나 행동하는 종친회가 되길 기원한다 "고 했다. 권기수 별장공파총회장은 "종친회가 활성화 되도록 힘을 보태겠으며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기원한다"고 말했다.

회장들의 인사말이 끝나자 대회장에서 국밥과 떡, 잡채, 부침개, 닭발편육, 과일, 음료수, 소주, 맥주 등 푸짐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은 후 윗놀이 대회를 가졌다. 청팀과 홍 팀으로 나눠 각 팀에서 선수 2명씩 9개 조가 출전,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6대 3으로 청팀이 우승을 차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찬조금을 낸 회장과 종원은 권철환 회장 40만원, 권영직 회장 20만원, 권숙동 고문, 권재용 회장, 권기수 회장, 권순택 국장 각 10만원, 권중익 8만원, 권영동 5만원, 권기창 3만원 등이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티슈 화장지 6통 등이 1박스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32)



정인호는 직접 이항의 출처문제와 인물논쟁에 대해 다시 신랄하게 혹평하기를, "이항이 소식과 성운의 (비습에) 나아가지 않은 것 : 不出(불출)을 하나의 조그마한 절의로 보고 이단으로 논의 하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아 애석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시절에 따라 비습에 나아가 세력가들에게 아부하였고(추시부세趨時附勢 : 중

말년과 명종 때 문정왕후 섭정시기 훈척 세력의 혼조(昏朝) 아래서도 성균관 대사성, 홍문관 대제학, 의정부 우찬성·판중추부사(중1품) 비습을 역인한 사실을 이른 것), 이익을 즐기고 좋아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고(기리무치嗜利無恥 :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0. 203-211쪽. 참조하면 퇴계의 財富는 당시 상당하였다. 初娶 부인 김해 許氏와 再娶 부인 안동 권씨의 친정이 큰 부자였다. 그의 卒後 '재산분급기'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술·외가)奴婢 367명, 전답이 5개 고을(郡縣 : 禮安, 奉化, 永川, 宜寧, 豊山) 등지에 약 3천 두락(마지기) 정도를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끝까지 간사한 권력배들의 문객이면서 당시 많은 사람의 논의에서 버림 받은 이정(李楨, 1512~1571, 호는 龜巖), 황준량(黃俊良, 1517~1563, 호는 錦溪)과 같은 약간의 무리(『來庵集』, (야나 하권), 『退溪答李楨書』, 428-430쪽 참조; 조식이 인적인 河宗岳 후처의 유행사건으로 이정과 절교하였는데, 이항이 이정에게 편지하여 조식의 행동을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에 대해서는 혹 '도학(道學)이라 하여하고 혹 성현으로 기대하여 왕복한 서신이 쌓여서 책을 이를 정도였다.' 『光海君日記』 권 39, 3년 3월 26일 丙寅條)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인호는 이언적과 이항 모두 유학을 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도 '명'이 '의(義)'에 따르는 녹(祿)을 받지 않는 道(은퇴하여 산림에 온전히 거하는 도리 『周易』, 『地火明夷』卦 初九)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두 사람이 남의 신하된 도리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정치가 옳지 못하면 그치고 돌과 같이 굳어서 세상을 끝마치는 출처의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인조반정 후에 정인호가 "대명률"에도 어긋나게 제대로 된 수사(鞫問)도 없이 황급하게 참형(斬刑)을 받은 것이 두 선현과 사도에 대한 '출처대의'의 신랄한 비판 때문이라는 학설도 분분(紛紛)하다.

자고(自古·옛부터), "집안이 어려워(困窮)지만 현도양처가(를) 생각나고(그리워하고), 나라가 난국(내우외환)에 빠지면 충신열사가(를) 생각한다(학수고대 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인생의 자취행적과 언어문자를 남기기 때문에, 공사(公私)를 구분하여 그 이익을 향배(向背)를 따져야

한다. 또한 그 당시 '시대정신의 정화(精華)를 고취하며 윤리도덕과 상식, 정의에 올바른 지도력으로 문화를 창달한 공업(功業)이 있어 존경과 생전사후의 역사적 평가(존송과 비판)를 두려워해야 한다.

또한 '선생은 뛰어난 제자를 잘 가르쳐야 역사적으로 성현(聖賢)으로 존송 받을 수 있고, 집안이 누대세세 영화롭게 변창 하려면 자손을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실천하는 인물로 훌륭하게 키워 이웃과 친척, 친구들에 적선(積善·德)하여야 한다.' 하였다. 구체적으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싸(사)가지(인의예지)와 봉제사(奉祭祀) 집빈객(接賓客)을 마음에서부터 정성으로 실천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는데도, 현실은 이제 '개인·이기·가족·출세주의' 등과 '돈(말문의 신)'이 여호와 하는(나)님:부처보살:알라칼리프 등 인생의 목적이 된 사회문화론과 천민주의의 승자독식 하느라고 1:99사회의 '경쟁교육'이나 극소수 '엘리트주의 법비(法匪)'들의 허접한 신도(信徒)나 졸개들로 노예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요즘 중국에 관련한 나라를 망친 역대 3대 악녀(한고조의 유방의 여후, 당대 측천무후, 청나라 서태후)를 유투브에 올라오고 있다. 그렇지만 한나라와 당나라가 계속 이어졌던 여후(呂雉)와 (武)측천보다는 서진(西晉, 265~316)의 2대 황제인 어리석고 나약한 혜제 사마충(司馬衷, 259~306, 재위290~306)의 황후 가남풍(賈南風, 257~330, 282년에 태자비, 290년에 황후)와 현재 중국(중화인민공화국, 1949-)의 모택동(1893~1976) 4번째 부인이었던 강청(江青, 1914~1991)이 음흉(陰)하고 악독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수많은 정적 제거와 정변(팔왕의 난:16년간·문화대혁명:11년간)을 일으킨 역사적 사건들은 매우 유사하다.

사마씨를 정점으로 한 서진의 통치 집단은 역사상 황음무도하고 부정부패한 정치의 표본이었다. 서진의 1대 황제 무제 사마염(司馬炎, 236~290, 재위265~290)은 오(吳)나라를 평정한(280) 후 천하가 안정되자 곧 연회와 향락에 빠져들었다. 아첨꾼들이자 외척들이 황후의 아비인 양중(楊駿, ?~291)과 태자비의 아비인 가충(賈充, 217~282)을 신임하고 공개적으로 매관매직을 하였으며 그렇게 벌어들인 재물을 소비하고, 망한 촉(蜀)·오나라 미녀들을 궁중에 끌어들여 양(羊)이 끄는 가마가 머무는 곳마다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다. 혜제 또한 어리석어 밤낮으로 후궁과의 향락이 있는 것만 알뿐 정치적으로는 가후(남풍)의 농간에 놀아났다. 황제와 여러 27개 번왕(藩王)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와 기근, 흉작 등으로 굶어죽는 백성들이 속출하자, 혜제는 겁에 질려 "왜 고기국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다. 마치 프랑스 대혁명(1789.7.14) 전에 루이 15세 애첩 파파두르 백작부인과 루이16세 왕후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리석은 질문을 연상케 한다. (다음호에 계속) (다음호에 계속)